

“하늘나라와 현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를 읽고

조영호 (안양대학교)

마태복음 안에는 ‘하늘나라’의 표현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늘나라’라는 주제만큼 다양한 해석을 가져오는 성서의 주제는 많지 않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늘나라’의 해석은 언제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노력으로 일정 부분의 진보는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명확한 해석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하늘나라’의 개념이 일반화되기가 쉽지 않으며,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 예수가 ‘하늘나라’를 강조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늘나라’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주시영 박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늘나라와 현세의 관계에 대한 소고”에서 다루고 있다.

주 박사는 논문을 통해, ‘하늘나라는 존재하는가’에 대한 현세적 기준과 ‘하늘나라의 이념을’ 살펴본다. 이후 그는 “하늘나라는 현세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나라”이며 이 나라는 “생명, 사랑, 용서 그리고 자비”를 이념으로 실천하는 나라라고 정의한다. 주 박사의 이러한 논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마태가 이해한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시영 박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부득불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발표자는 하늘나라를 실재적 국가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하늘나라(β ασιλεια του θεου)를 어떤 특정한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왕국’ 번역보다는 ‘통치’, ‘다스림’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이해.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해와 많은 부분 충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발표자는 “‘하늘이 열리고’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대기권출입에 따른 필요한 절차와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며, 아울러 ‘하늘의 열쇠’는 대기권통과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방법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 또는 상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대기권 밖의 우주 어느 부분에 하늘나라가 국토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하늘나라를 대기권이라는 가시적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상식과의 대립에 대해 기독교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차라리 마태에서 ‘하늘나라’는 초월적이고 역동적인 실체를 의미한다“는 (유태엽, 「마태의 신학」) 이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가 초월적이며 역동적인 실체로서 하늘나라를 하늘 (여기서 하늘은 대기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편적인 희망의 공간으

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발표자는 “마태복음서에는 하늘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로 하느님 이외에 ‘천사’들이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역시 포스터(Rovert Foster)의 이해와 상충한다. 포스터는 ‘하늘나라’를 마태복음저자가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점을 옹호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신앙의 변절 혹은 유대교 공동체로서의 회귀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차정식,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신학적 상상력”,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46집』, 58 재인용) 개인적으로 포스터의 주장이 마태복음의 저적의도에 보다 합당해 보인다.

4. 그리고 발표자는 마태의 하늘나라와 현세의 관계를 다루느라 하늘나라의 현재적 성격만을 주장하고 하늘나라의 미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함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5. 그리고 발표자는 창조 이야기를 통해 로 하늘나라와 현세의 관계를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윤리적 삶을 이야기한다. 본인도 주 박사의 이러한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창세기가 아닌 부제가 - “마태복음 하늘나라 비유를 중심으로” - 말하고 있듯이 마태복음 19장의 세 가지 하늘나라 비유에 대한 주석적 작업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태복음 19장의 비유는 ‘영생(19:16)’, ‘생명에 들어가는 것(19:17)’, ‘구원(19:25)’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마태복음 19:16-20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 ‘영생’, ‘구원’ 등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로 본다.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온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향한 온전한 헌신의 행위의 강조이다. 그 행위는 때에 따라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지만 이웃을 향한 선행적 의미와, 예수를 향한 절대적 헌신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나님나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비종말론적인 해석과 종말론적인 해석, 그리고 이 두 해석을 종합하는 해석으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생각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생각들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 따라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현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며, 시대 속에서 하나님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한 우리가 주시영 박사의 “하늘나라”에 대한 논의와 관점을 통해 하늘나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다른 이해 방식의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받았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